

CEO Report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II):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김석영·홍보배

10_호
2023.10



CEO Report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한국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I

인구 구조와 노인 부양 여건

- 인구·사회적 여건 변화를 볼 때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부양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향후 노인들은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임
-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갈수록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과 함께 노인인구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8백만 명, 2050년에는 1천 9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노년부양비(노인인구/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상승하여 2070년에는 노인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가 겹쳐지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할 여력이 크게 악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그림 I-1〉 고령인구 및 노년부양비(1960~2070년)

(단위: 천 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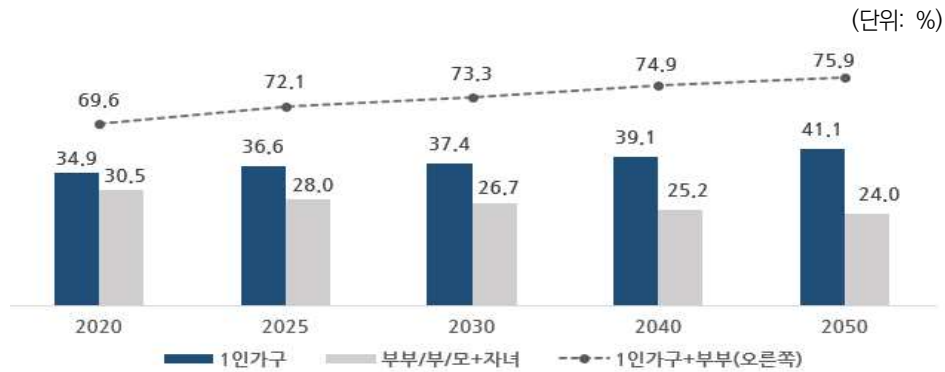


주: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상호간의 부양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인 부부만 생활하거나 노인 1인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 부부는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거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고령자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기가 어려워져 스스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등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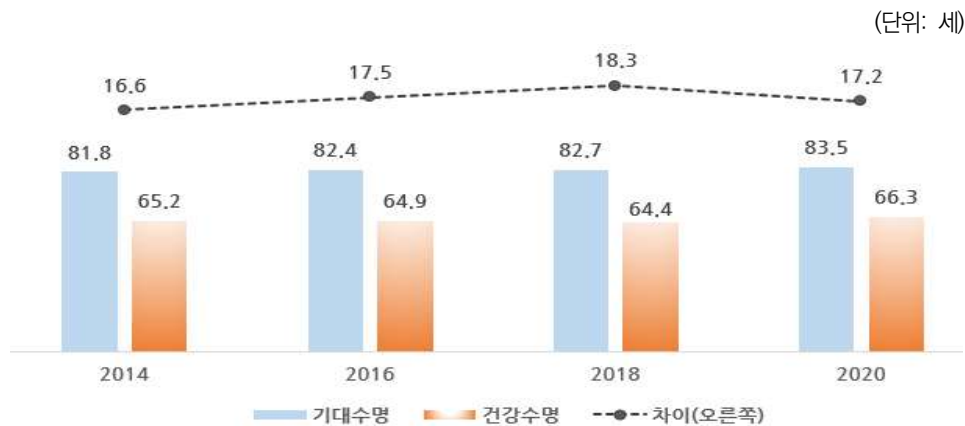
〈그림 I-2〉 고령자 가구 유형(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2020~2050)

-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20년에는 83.5세에 이르고 있어 초고령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반면, 건강 수명은 60대 중반에서 큰 변화가 없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또는 요양 등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림 I-3〉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자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II

새로운 노년층과 금융 수요

-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개인적인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경우 갈수록 은퇴자들의 가입 기간 길어지면서, 수급자와 수급액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67만 명, 평균 지급액¹⁾도 연 500만 원을 상회하여, 2012년의 수급자 약 352만 명, 평균 지급액 약 328만 원을 크게 상회함

〈그림 II-1〉 국민연금 수급자 및 평균 수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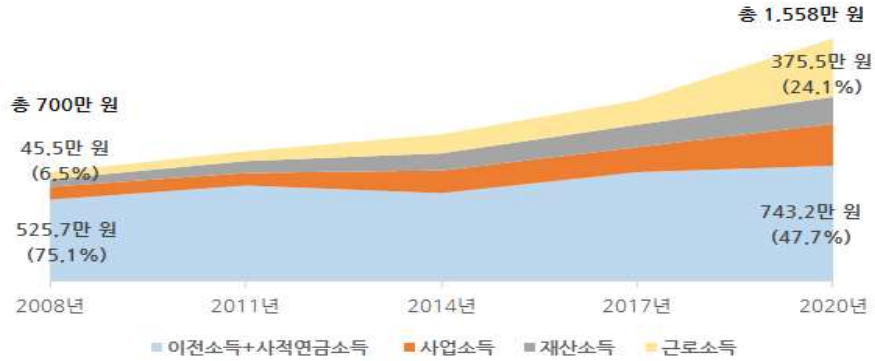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 특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경제력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고령자의 개인 소득은 2020년 근로소득이 2008년 연평균 45.5만 원에서 375.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도 약 700만 원에서 1,558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1) 본고의 평균 지급액은 총지급액을 수급자로 나눈 것이며, 총지급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모든 지급액을 합한 수치임

〈그림 II-2〉 고령자(65세 이상)의 연간 개인소득 구성 항목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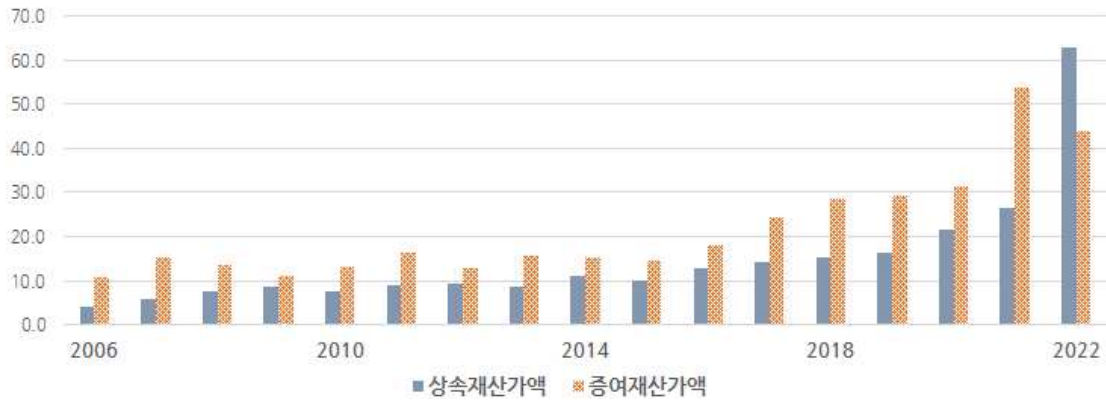


자료: 이윤경 외(2021)

-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상속과 증여자산 가액은 2002년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는 각각 40조 원을 상회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II-3〉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과거에는 가족 내 이루어지던 요양, 친목 등의 기능이 가족 구성원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노인의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대부분 고령층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의 요양병원 과 요양시설은 모두 기관 수와 병상 수에 있어서 2008년 대비 두 배를 초과하고 있음

〈표 II-1〉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요양병원	690 (7.6만)	1,103 (14.0만)	1,428 (24.2만)	1,529 (28.1만)	1,582 (30.8만)	1,464 (27.6만)
요양시설	1,332 (6.7만)	2,610 (11.9만)	3,136 (15.0만)	3,289 (15.4만)	3,844 (18.6만)	4,057 (19.9만)

주: 1) () 안은 병상 혹은 침상 수임

2) 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만 포함함(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자료: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요양시설은 통계청, 노인복지시설현황(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을 참조함

- 자녀와 분리되어 사는 고령층 가구, 만혼에 따른 1인 가구, 무자녀 혼인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50, 60대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각각 18.9%, 14.4%로 전체평균 15.0%²⁾와 유사하거나 높음

〈표 II-2〉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시장규모 추이

(단위: 만 가구, 조 원)

구분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7년도 (예상)
반려동물 양육가구	457	593	511	591	638	-
반려동물 시장규모	1.9	2.3	2.7	3.0	3.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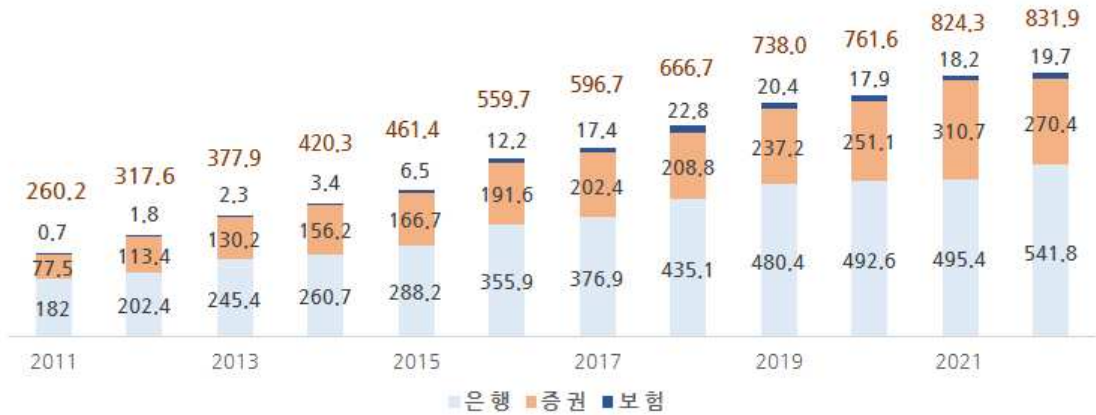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1. 4. 23),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 키운다”; 지인배 외(2018)

-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독립적인 삶을 사는 고령층이 자산을 운용하고 유언, 상속, 후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신탁의 경우 타업권에 비해 보험산업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업권별 신탁·수탁고를 보면 보험산업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통계청 보도자료(2021. 9. 27),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그림 II-4〉 금융업권별 신탁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금융감독원, 연도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 보험산업은 독립적이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의 금융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은 치매, 간병 등에 대한 보장에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건강관리, 신탁 등 신시장 개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개인성보험의 보험료 추이를 보면 모두 2013년경을 기점으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는 현상이 발견됨
 -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보험료 납입 주체인 젊은 층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층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됨

〈그림 II-5〉 생명 개인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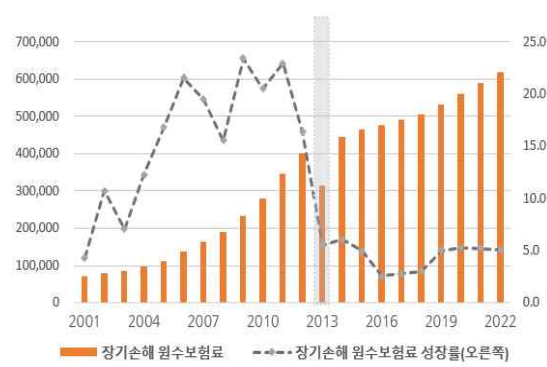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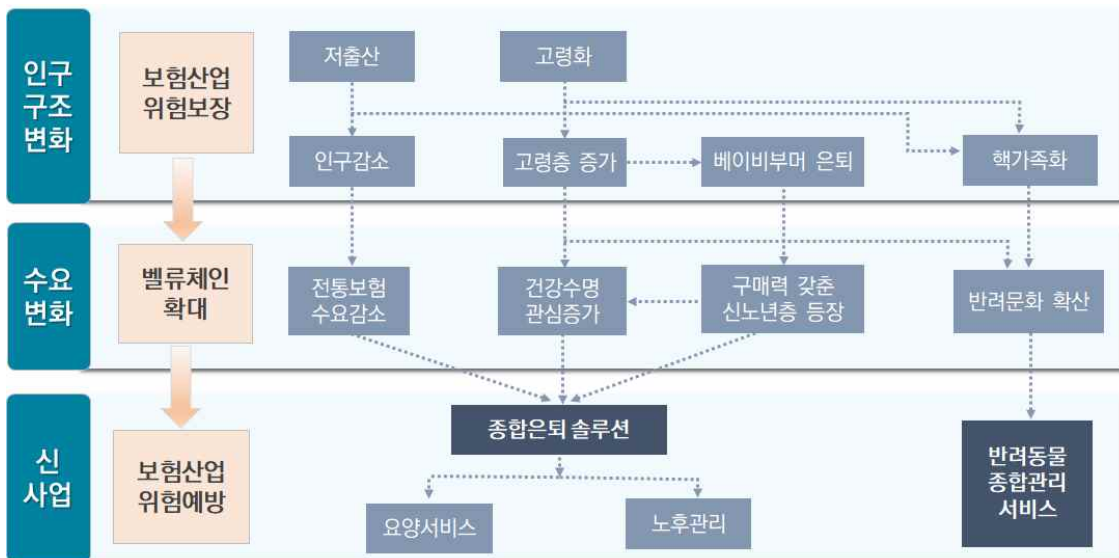
III

신사업 방향 및 제언

1. 신사업 방향

-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³⁾
 -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를 확대·개선하여 금융-비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
-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1〉 보험산업 신사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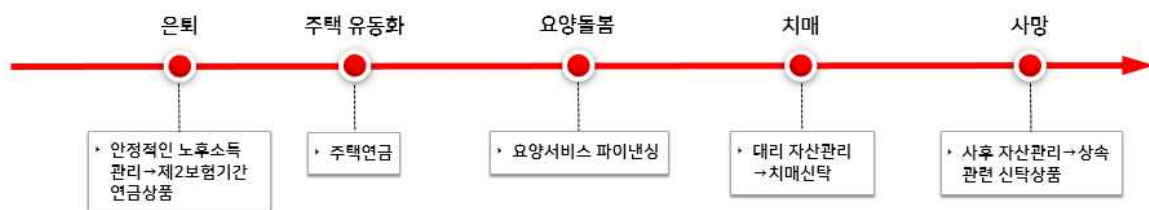


³⁾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11. 15),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향후 10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 신노년층은 공적연금 수급자로 경제력을 가지며 도시 거주 및 단독 공간을 선호하는 등 현재의 표준화된 서비스 이상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므로, 이에 대응한 요양서비스 공급 전략을 모색함
 - 일본의 유료노인홈처럼 건강할 때 입소해 등급판정을 받고도 동일시설에서 계속 거주하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2등급만 입소가 가능하고, 요양등급이 낮은 경우 주간에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야간의 돌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설계사 조직 및 교육 경험을 토대로 통합재가 방문서비스 공급을 고려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의 방문서비스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제공되고 있고, 야간 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설에 머물러 있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특히 재가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 중산층 고령자를 자산관리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하여 연금보험 수급기간의 안정적인 소득관리 및 자가주택의 유동화 수요에 대응한 연금 및 종합재산 신탁을 중심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고령자의 상속·증여와 같은 부의 이전, 후견 기능, 생활자금 소득화 등으로 고령사회가 가진 장수위험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거동이 불편할 경우를 대비한 요양서비스 파이낸싱 및 치매신탁, 사후 자산관리를 위한 상속 관련 신탁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자산관리서비스와 함께 제공함
 -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해 '실버 전문 금융상품회사'와 같은 고령층 특화 금융상품 전문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검토함

〈그림 III-2〉 은퇴 이후 주요 이벤트



-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 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반려동물과 펫 보험 확산으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반려동물 운송, 반려동물 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종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펫 푸드, 펫 헬스케어, 펫 모빌리티(펫 택시 운영 등), 펫 로스(펫 전용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펫 에듀케이션(펫 행동교정, 펫 재활 등), 펫 돌봄(펫 산책, 놀아주기, 여행 중 돌봄서비스 등)이 그 예시임
 -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는 펫 보험과 연계하여 제공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펫 보험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생애주기 전체의 의료·건강 데이터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제언

-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 전통적인 위험보장의 보험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험예방으로 전환은 지속적인 고객 소통을 통해 고객정보 및 자금의 접점을 확대하여 신노년층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제시함
 - 특히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는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의 확대를 의미함
-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 2035년 고령 돌봄수요는 현재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직적인 공급규제로 인해 민간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임

참고문헌

이윤경·김세진·남궁은하·임정미·김혜수·이선희(2021),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종합적 체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8),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국세청, 국세통계

금융감독원,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_____, 국가승인통계

저자약력

김석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 선임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홍보배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Economics 석사 / 연구원
E-mail : bobae.hong@kiri.or.kr

CEO Report 2023-10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II):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경성문화사

ISBN

(정가 10,000원)